

자동차 업계 '중고차 마케팅' 가열

현대차 '베르나' ▶



GM대우 '마티즈'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업계의 '중고차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선 국산차 업계는 물론 수입차까지 '중고차 가격보장' 등을 앞다퉈 도입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새 차를 팔기 위해선 중고차값부터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량은 9만8천299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9.0% 떨어진 것으로, 기침값이 치솟기 시작한 지난 3월(11만2천855대)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 3년 이하의 구입가의 최대 58%, 5년 이하는 4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중고차 마케팅'에 나선 것은 소형차의 판매 신장을 통해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중에서도 유독 '베르나'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중고차 가격에서 찾은 것이다.

실제 '베르나'는 타사 경쟁 모델에 비해 중고차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 현재 2005년식 '베르나' 1.6 가솔린의 시세는 800만~830만원이지만 동급 프라이드는 910만~940만원으로 100만원

◇수입차도 '공인 중고차 사업' 등 마케팅 기세=수입차업계도 '중고차 마케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마세라티의 공식 수입업체인 FMK는 지난달부터 '2008년형 콰트로포르테'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레스티지 오너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콰트로포르테'를 구입하면 3년 뒤 마세라티를 재구매할 때 중고차 교환 가치의 최소 50%를 보장받는다. 또 3년간 소모품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MW·크라이슬러·포르세 등의 수입차 업체들은 직

고유가 여파 중고차 시장도

"경차·LPG차 금값"

고유가 여파로 차량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차와 LPG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기아차 '모닝'의 경우 계약부터 차량 인도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될 만큼 몸값이 높아지면서 중고차값도 크게 치솟고 있다.

4월 기아차에 따르면 '모닝'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4만257대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2만8천404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대가 물량만 4만여 대가 넘는다.

이처럼 '모닝'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3~4배 폭증하면서 중고차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판매된 지 2~3개월 된 중고 경차를 신차 값에다 웃돈까지 주고 구입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GM대우의 '마티즈'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마티즈'는 지난 1~5월 2만4천384대가 팔리자갈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고유가는 LPG차량의 몸값도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LPG차는 중고차 시장의 '미운 오리 새끼'로 통했지만 최근 가격이 올라 품귀현상마저 빚고 있다.

지역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카니발·카렌스·싼타모·레조 등 LPG차량의 중고시세는 올 들어 30~40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최근 LPG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경유급급의 여파로 디젤 및 SUV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50만~70만원 가량 떨어지는 등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고차 떠야 새차 잘 팔린다

현대차 등 '가격보장' 도입... 수입차 업계도 '공인 중고차' 판매·전시장 운영



자동차 업계는 이처럼 고유가로 인해 내수가 얼어붙자 '중고차 가격보장'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중고차시장에서의 차값은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나 신차 판매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살 때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중고차 가격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속형 수요자 '호감'=현대차는 최근 '2009년형 베르나'를 출시하면서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차를 산 고객이 나중에 현대차 중고차처리센터로 넘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실속형' 수요자들로부터

가량 차이가 있다.

GM대우는 국내시장에서 '중고차 가격보장'의 원조로 꼽힌다. 전신인 대우자동차는 지난 1997년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 주는 할부제도를 도입해 승용차 시장 1위에 오르기도 했다.

GM대우는 2006년 이를 부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주력 모델인 '토스카'와 '윈스톱'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3년 뒤 중고차 가격의 55%를 제외한 나머지만 매달 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할부보다 초기 부담이 적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고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했다는 게 GM대우측의 설명이다.

점 '공식 인증 중고차' 판매를 위한 전시장을 운영한다. '인증 중고차' 사업은 신차 판매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데다 중고차 사업 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중고차 값을 높이는 것은 신차를 잘 파는 것 이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업체들의 중고차 마케팅도 가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아차 '모닝'

동양의 향연! HAINAN

무안++하이난(삼아)직항 매주 수,토 4회 한일 ₩899,000~
8/12, 8/26, 8/29, 8/13(재), 4회 한일

무안++장사(장가계)직항 매주 일,목 7회 한일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9일

4명부터 출발가액 ₩999,000~

4명부터 출발가액 ₩899,000~

최정 향연의 무궁무영 **장가계**

www.kimbc.co.kr

NAVER

문의/신청: 박 동영(061)228-1070

※항공 요금의 변동에 따른 경우 Kimbc(061)228-1070 상담센터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